

희망과 용기를 주는 영원한 친구가 되기를



안 후 상

상아 목장

경남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낙농육우협회의 창간16주년을 축하합니다.

낙농육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협회 회장님, 임원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벌써 여름이 되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면서 친지가 얼어버린 차가운 겨울에는 이땅에 영원히 봄이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얼었던 대지는 녹고 한잎두잎 돌아나던 새싹들은 온천지를 푸르름으로 덮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의 이치라 했던가요.

95년 가을부터 시작된 모든 낙농육우인들이 겪었으며 다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시련들, 95년 10월 유품물질서비에서 부터 시작

하여 저멀리 바다 건너 낯선 영국 땅에서 발생한 광우병과동,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발암물질사건등은 우유의 소비를 감소시켰고, 국제무역구조의 재편이라는 미명아래 탄생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나라에 사상유례없는 분유를 수입 가능케하여 국내 분유 재고 과잉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여 낙농육우 산업의 종사자들에게 건디기 힘든 시련을 안겨 주었다고 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 봅니다. 더이상 시련의 늪에서 머물때가 아니며 중요한것은 어제의 시련보다 오늘의 가치있는 삶,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것에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낙농육우인들과 같이 어렵고 힘든일을 하나 둘씩 해결하려고 애쓴 협회의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낙농가의 한사람으로써 협회에 바람이 있다면

첫째, 우리나라 모든 낙농육우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고 모든 낙농육우 동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는 낙농육우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현실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우리모두의 뜻을 모아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

아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새로운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협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특히 생산성을 향상시켜 원가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낙농육우산업이 되도록 협회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어제의 과학이 오늘은 모두가 알고있는 상식이 되는 것처럼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산업이 되게해야 합니다.

또한 낙농육우인들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우리의 뜻을 정부, 학계 및 모든 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넷째, 낙농업의 장래를 위하여 국내 및 국제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낙농진흥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농민들은 눈앞의 이익보다 우리 모두 미래를 위하여 양보하며 후배낙농육우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낙농업의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낙농진흥법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 는 우리민족이 지구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농육우동지들은 주어진 현실에 충실합시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다가올 앞날을 준비합시다. 겨울이 오면 봄은 필히 오는 것이니 우리 모든 낙농육우 동지들이여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합시다.☺